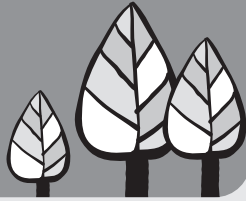


축산 소식



한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법 세부규정 개정 한우자조금 거출과 관련해 과태료와 연체수수료가 신설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대전 유성 흥인 호텔에서 '2011년 제1차 관리위원회' 를 열고 2010년 자조금 결산 및 축산물자조금법 개정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한우 도축 및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나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조금 납부가 지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0.03% 단리이자가 부과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이번 한우자조금 제반규정은 이외에도 사업의 주관단체를 축산단체에서 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부지원금의 용도도 텔레비전, 신문광고 이외 사업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조금 이용을 위한 회계규정도 변경돼 자조금 계좌 인감은 기존 축산단체장에서 관리위원장으로 변경됐다. 예산변경절차는 기존 관리위원회 의결 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던 절차에서 관리위원회 의결 후 대의원의 결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날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의장, 관리위원, 관리위원장, 감사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우영기 관리위원 등 총 7명을 초대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관리위는 4월 중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2011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2010년 한우자조금은 총 311억원 중 81%인 253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축산신문 • 김동호 기자

양돈

양돈협, 양돈농가 야생 멧돼지 접근 예방법 배포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차원에서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 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이하 열박위)는 최근 야생 멧돼지의 혈액, 분변 등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항원·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의한 돼지열병 감염을 막기 위한 <양돈농가 야생 멧돼지 접근 예방요령>을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하고, 양돈농가의 돼지열병 백신 접종 및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여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열병박멸위원회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전파되어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주지하고, 각 양돈농가에서는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철저히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야생 멧돼지가 농장주변에 지속적으로 출몰하거나

농장내로 침입할 시에는 해당 시·군에 요청하여 조속히 포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야생 멧돼지 돼지열병 항원·항체 검출 현황〉

검사두수	구분	양성	지역(양성두수)
420	항원검사	4	연천(4)
	항체검사	6	연천(3), 함양(1), 순천(1), 영암(1)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 참고

양계

산란실용계 병아리 무관세 수입

양계협회, 향후 1년간 100만수 대상 추진계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로 산란실용계 병아리 국내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올 하반기 계란 수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산란실용계 병아리 수입 시 적용되던 할당관세 9%를 향후 1년간 100만수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AI 발생으로 매몰처분된 산란종계가 17만2,000여수에 달하는 등 산란실용계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산란실용계 병아리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로 인해 보통 수입이 이뤄지지 않지만, 무관세 수입이 이뤄지는데다, 국내산 산란실용계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로 가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내 산란실용계 병아리 수당 가격은 지난달 1,200원선에서 최근에는 1,400원선까지 상승한 상태. 관세 0%로

수입산 산란실용계 병아리가 들어올 경우 운임비 등을 포함 수당 1,700~1,80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살처분에 따라 국내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수입 물량의 수요는 있을 것이란 업계의 판단이다.

양계협회 사전조사결과 3~4월에 34만4,000수 가량의 수입 물량 입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에선 현재 웃돈을 주고 산란실용계 병아리를 입식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 하반기 계란 수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종웅 대한양계협회 과장은 “살처분에 따라 7월까지 산란실용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란실용계가 무관세로 수입된다하더라도 하반기 계란 생산물량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최근 발표한 축산관측에 따르면 산란용 닭 마리수 감소로 3~5월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5.2% 감소하고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18.1~37.0% 상승한 1250~1450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



다. 이는 AI 발생으로 산란계 130만 마리가 매몰 처분된 데다, 신계군도 감소해 3~5월 산란용 닭마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겨울철 한파로 산란용 닭 평균 산란율도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민신문 • 김관태 기자 • kimkt@agrinet.co.kr

낙농

‘낙농체험지도사’ 양성교육 진흥회, 3월 29일부터 3일간 체험 인증목장 관계자 대상 추진계획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가 낙농체험목장의 교육기능강화를 위해 현장교사인 낙농체험지도사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낙농진흥회는 3월 29일부터 3일간 경기 화성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2011년 낙농체험지도사 인증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낙농체험목장 교육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낙농체험 인증목장 관계자와 예비 인증목장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수교육 후에는 낙농진흥회가 인증하는 ‘낙농체험지도



사’로 활동하게 된다. 인증기간은 2년간이며 2년 단위로 보수교육을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지난해 개발한 낙농체험목장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수교육 참가자들이 낙농체험지도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제 학교교과과정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이 낙농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총 책임자였던 서울교육대학교 김정원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이희영 • Lhyoung@chuksannews.co.kr • 2011.3.23

양봉

양봉농가 소득 증대 위해 총력

한국양봉협회, 정기총회서 결의



한국양봉협회(회장 배경수)는 지난 18일 대전 호텔 아드리아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0년도 사업 결산(안) 및 2011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양봉협회는 올해 양봉산업 육성 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기로 했다.

양봉협회는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양봉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정부 시책인 축산시설현대화사업에 발맞춰 2015년까지 매해 100군 이상의

전업농가가 현대화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밀원수 다양화 및 식재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밀원수종 면적 확대, 도단위 시범군락지 조성, R&D 연구사업 및 밀원면적 통계조사 등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꿀벌 종자개량 및 보급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우수여왕벌 검정 시스템 구축, 전문육종장 지정, 꿀벌육종연구실 설치, 양봉과 신설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설 방침이다. 꿀벌 병충해 방제를 위해 치료약품의 연구개발 및 원활한 농가보급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양봉협회는 또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봉독제품 연구·개발, 봉독정제시설 설치 등을 통한 봉독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이외에도 양봉산물 수출산업단 육성, 양봉산물연구소 검사·연구장비 현대화, 양봉산물 축산물 범위 확대, 벌꿀 유통혁신(광역사업단 구성, 브랜드 개편 등) 추진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회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양봉자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부담 2억원, 정부 지원 2억원 등 총 4억원을 거출목표로 삼았으며 벌꿀 소비홍보를 위한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소비촉진 시식회와 함께 벌꿀 공동브랜드 출원 및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과제를 통한 R&D 연구사업, 달력 및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자조금 거출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축산경제 • 박정완 기자 • wan@chukkyung.co.kr

양록

2011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 개최

지난 3월 29일 제2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1차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구제역 발생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회의로 안건 처리는 물론 지난 2월 15일 제37차 정기 총회 및 제18대 회장선거를 거쳐 구성된 제18대 임원진의 상견례와 겸해서 진행됐다.

강준수 회장은 “그 동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축질병 조기종식을 위해 각종 모임과 회의를 자제하며 서면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구제역 발생이 줄어들면서 지난 3월 24일 가축질병(구제역)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제1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양봉협회 제공

